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 제임스 네이 스미스 의 농구

글그림 : 김민재

그는 별생각없이 바위에 물을 던져 집어넣었다
이거 재미있네~
그는 이 놀이에 흥미를 느끼고 금을 돌아 집요에 넣기위해 바구니를 놓기 시작했다.
그는 이 놀이를 게임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였고 마침내 게임을 만들어 내었다.
흠~ 우선 이 게임에는 사람들이 필요하니 좋겠는~
다시금 금을 맞추어 놓기 대회로 하는것이 좋아~
그렇게 금을 가지고 놓기 경쟁을 만드는것으로!
얼마후인 1996년 1월 15일의 스포츠월드 대학 신문에는 특이한 기사가 실렸다.
새로운 게임 선풍
'바스켓볼'
갈비탕사랑 1학년 김 씨의 작품
바스켓볼의 첫 경기에는 약간 가량 8명의 선수로 구성되었고 운구공을 사용하였으며 경기는 긴 막대봉의 공 넣기에서로 진행되었다. 한편 경기장도 구멍대로 기록하였다.
와와와~ 게임에 흥미있어 보이네~
이후로 바스켓볼은 급인기를 끌게 되었고 새로운 기술도 선보이게 되었으며 1896년에는 뉴욕크기의 농구공과 3번도의 바퀴에 겔다. 또한 1904년에 마침내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기록 채택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구가 오늘날의 인기스포츠가 되었다.
실화
농구는 그리스에서의 경기에서 영감을 얻어 YMCA 강사로 있던 제임스 네이스미스가 만들었다.
슬램덩크 만화를 참고하라 '게임 아이디어'